

### 지방선거 이후

# 호남당 한계 벗고 전국 정당화 기틀 다졌다

## ■ 민주당 재도약 발판 마련과 향후 진로

### 지방 권력 분점 정권 재창출 기반 확보 정국 주도권 장악... 야권 대통합 숙제로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이 8년간 독점해온 지방 권력을 분점함에 따라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7년 넘게 이어진 선거 참패의 사슬도 끊어냈다. 여기에 경남에선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선전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으며, 비록 패배했지만 부산에서도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40% 이상'이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이루지 못했던 '동진(東進)의 꿈'을 이뤘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호남당, 불임정당'이란 오명을 벗어 던지고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으로 떠오르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의 승리에서 중요한 점은 전국정당화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국정당화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원내 1당으로 복귀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대선 승리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방선거 승리로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이 제고되면서, 정치권과 정국 운영에서의 영향력과 견제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은 3일 이번 지방선거를 "국민의 승리"라고 정의하면서 곧바로 대야(對與)공세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한 정권 교체심리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국을 확실하게 주도해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중앙 선대위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와 4대강 사업 중단, 남북관계 복원, 세종시 수정안

철하 등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강력한 원내투쟁, 대야 투쟁을 통해 수권정당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80여석의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은 18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에 정국주도권을 내준 채 속절없이 끌려 다녔다는 평을 받은바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발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선전을 계기로 야권 통합에 시동이 걸릴 지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 후보단일화가 이번을 연출한 동력이 됐다는 점에서, 제1야당과의 연대 압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야권통합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김두관 경남 지사의 영입과 함께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노 인사들을 포함한 대통합 야당의 출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쯤은 밖으로는 거대 야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나서고, 안으로는 국민참여당과 친노 세력을 꺼안아 전국정당화에 나서야 할 절호의 시기"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6·2 지방선거 개표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아권이 승리한 가운데 3일 오전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의 당선 소식을 축하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 텃밭서 흑독한 심판받은 민주당 호남과 관계 재설정 필요하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정치적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민심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특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도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광주·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무려 8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데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 및 여타 정당 후보가 10명이나 당선됐다.

또한, 비례대표를 포함한 광주 지역 지역구 기초의원 당선자 68명 가운데 비 민주당계 당선자는 ▲

배려와 관심을 쏟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18대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한 초선 의원들은 과감한 정치적 행보보다는 좌고우면식의 눈치 보기에 치중하거나 지도부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중진 및 다선 의원들도 걸맞은 정치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당내 중도나 비주류로 분류되면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3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자리에 안주하거나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서 모호한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 공천과정 '오만과 무능' 표로 이어져 무소속 기초총 8곳·광역의원 10명 당선 호남민과 소통·정치 비전 제시해야

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 ▲국민참여당 2명 등 총 19명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기초의원 243명(비례대표 포함) 가운데서는 ▲무소속 49명 ▲민노당 19명 ▲국민참여당 2명 등 70명의 비 민주당계가 기초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는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역사상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정치적 텃밭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야당으로 전락했음에도 별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경고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또한, 광주·전남지역 후보 공천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오만과 무능'에 실망한 표심의 선택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권 창출 실패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 대한

특히,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은 대대적인 물갈이와 무소속 및 비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지렛대 삼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과감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지도부도 호남당이라는 부딪에서 벗어나 정치적 기반이자 민주, 개혁, 인권의 중심지인 광주·전남의 현안 사업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의 광주·전남 정치권은 리더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역에서는 민심과 소통하고 중앙에서는 과감한 도전을 통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386 三頭마차' 올라 탄 정세균

(송영길·안희정·이광재)

차기 전당대회에 얼굴조차 내밀기 힘들 줄 알았던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국민의 한나라당 심판을 받기로 휘파람을 불며 다시 섰다.

지도력 논란과 공천 갈등 등으로 모든 선거 책임을 다 뒤집어쓸 뻔했던 정 대표는 이번 선거 이후 송영길(인천시장 당선자)·안희정(충남지사 당선자)·이광재(강원지사 당선자)라는 친 노무현 3인방의 세력을 등에 업었다. 친노세력과 민주당 세력이라는 두축을 함께 안음으로써 당내 기반을 한층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정 대표는 3일 마지막 선거대책위원회 회

의에서 "투표가 권력을 이겼다.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6·2 지방선거는 무도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병엄한 심판이다"고 목소리를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같이 지방선거 승리의 공을 국민에게 돌렸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그의 입지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 패배 후 대표직을 맡아 2009년 두 차례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수도권 세 곳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더욱이 모두가 질 것으로 봤던 이번 선거에

서도 승리함으로써 정 대표는 민주당 지도급 인사들 중에는 드물게도 '승리한 사령탑'의 지위를 얻게 됐다. 제1야당 대표이면서도 야권후보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지원, 여당과의 '1대 1 대결구도 창출'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정 대표는 당장 7~8월 열릴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 대표가 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패배주의에 빠진 당원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준 것만도 상당한 역할이라는 주장도 있다.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도 강화될 것이라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hanbitgosi.com

개강 ▶ 7월 1주

한빛고시학원

## 압도적 1위 시설 합격을 강사진

### 79=공무원 종합이론반 주·야간반 개설

전국유일 79= 단독반 매월 짝/홀수반 개강

7.4=합격문제풀이, 기능직실면직권면학, 소명직합격전문특강

심화반과 | 3교시 | 2교시 | 1교시 | 0교시 | 24시간 | 24시간

수석합격자 배출

#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북구청앞 062-234-0234)